

차안박피부과와 결이 같은 그녀를 만나다

#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마음가짐으로서의 “긴장감”

15년 근속 신촌점 최경혜 실장



## 행위로서가 아닌 마음가짐에 긴장감 장착

“피부과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대체로 피부에 문제가 생긴 경우예요. 극도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불편함을 해소해 드려야 합니다. 최근에는 치료만큼이나 개선의 필요로 방문하지만 어떤 이유로 방문하든 고객들에게는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메디컬이라는 전문성과 함께 스킨케어의 서비스 측면에서 고객들의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 매 순간 긴장감을 놓지 않는다.

인터뷰 시작과 동시에 메디컬 스킨케어의 꽃인 여드름 압출이 여전히 어렵다는 최경혜 실장의 깜짝 고백 뒤 **훅하고 들어온 긴장감의 실체에 감동**이 밀려왔다. 매번 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변화무쌍한 고객들의 피부를 살피다 보면 긴장감 장착은 기본이다. 행위로서가 아닌 마음가짐으로서의 긴장감이다. 그리고 이 긴장감이 오늘의 그녀를 있게 했다.







##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이 없다

인터뷰 초반 충격(?) 고백에 놀란 웹진지기가 바로 고개 끄덕이게 했던 메디컬 스킨케어와 긴장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피부 전문가를 꿈꾸며 병원에 입사하지만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채 퇴사하는 예비 피부 관리사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바로 긴장감이라고. “병원이 장비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겠다는 생각으로 입사하는데요. 피부 관리나 해볼까 하는 생각이라면 쉽지 않은 직군입니다. 여드름의 경우에도 원인은 다양하고, 화장품 하나 바뀌서 피부가 뒤집어지는 일도 생기기 때문이에요. 관리하는 동안 최점점에서 고객의 뷰티 습관에 대해 귀 기울이고, 집중합니다.” 피부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고객과의 ‘공감’을 통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능동적으로 찾아야 한다.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이 없다는 그녀다.

## 최상의 피부가 아니라 최적의 피부가 건강하다

“15년 전과 비교하면 피부에 대한 정보도 워낙 많이 있잖아요. 뷰티 유튜버를 비롯해 일반인들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워너비 스킨에 대한 이상향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부러움의 대상인 연예인들의 피부는 거의 24시간 관리받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내 피부 상태는 생각하지 않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멍

신하다 보면 더 자극적인 제품을 찾기도 하고, 과도한 시술이 나, ~ 카더라 화장품에 더욱 솔깃하게 됩니다. 남들의 기준에 맞추는 최상의 피부보다는 내 피부 상태에 맞게 최적의 피부를 위한 의료진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피부는 피부과 전문의가 가장 잘 아니까.

차앤박피부과 의료진의 임상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내게 맞는 최적의 피부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최상의 피부에 가까워진다는 걸 오랜 시간 동안 목격해 왔다.

## 차앤박피부과는 일상이다. 긴장 속 평화!

그녀에게 차앤박피부과는 ‘일상’이다. 좋은 동료들과 존경하는 의료진까지 나만의 공간 신촌차앤박피부과. 그렇게 그녀에겐 일상이 되었다.

“결혼, 출산, 육아의 과정을 거치며 이제까지 많이 도와준 직원들과 원장님께 감사드려요. 한편으로는 워킹맘으로서 후배들이 나아가는 길에 보탬이 되는 선배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이 있는 공간, 가족만큼이나 자주 만나는 동료들이 모두 귀한 존재들입니다.” 육아의 기쁨도 크지만 병원에 복귀하고 보니 20여년 차 관리 실장. 최경혜!! ‘나로 살아가는 느낌’이 들었고, 가정과 양립할 수 있는 근무 환경에 더욱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무엇보다 그녀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피부 건강이 배가된다는 뿌듯함을 안겨주는 고객까지. 그녀가 마음가짐으로서의 긴장 속에 일상을 채우는 이유다.

Since 1996. 30여년간 건강한 피부를 위해 마음가짐으로서의 긴장감을 항상 장착하고 있었던 차앤박피부과와 결이 같은 그녀, 최경혜 실장의 오늘도 긴장감 리부트다.

